

“함께하는 따뜻한 성장을 이끌 주역, 월드클래스”

「월드클래스 2030」 비전

2021. 5. 14.



산업통상자원부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「월드클래스 1단계」 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	2
1. 월드클래스 사업 성과	2
2. 월드클래스 사업 추진의 시사점	4
III. 「월드클래스 2030」 비전	5
1.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견인하는 알짜기업	5
2. 産・學・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중추기업	7
3. ESG(환경, 사회, 거버넌스)를 실천하는 모범기업	9

I. 추진 배경

□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허리

- 중견기업은 대·중소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완충 지대이자,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 먹거리*를 만들어내는 우리 산업의 역군역할 수행
 - * 중견기업이 우리산업 매출의 15.7%, 수출의 17.3%, 고용의 14.3% 차지
-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「제2차(‘20~’24) 중견기업 기본계획(‘20.2)」, 「혁신형 중소·중견기업 성장전략(‘20.11)」 등을 수립

□ 「월드클래스」는 중견기업 성장 관련 대표 정책 브랜드

-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글로벌 챔프로 육성하는 정책으로서, 지난 10여년간 중견기업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

【 월드클래스 1단계 추진경과 】

- ‘10.3월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수립, 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육성 방안 마련 (제51회 비상경제대책회의, VIP)
- ‘11.2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시행
- ‘14.1월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
- ‘19년 월드클래스 300 사업 일몰 * ‘19~’22년은 계속 사업만 수행
- ‘22년 월드클래스 300 사업 종료

- 월드클래스 지원으로 해당 기업의 성장(중소→중견) 뿐만 아니라, 일자리 창출, 수출 증대 등 산업적, 국민경제적으로도 높은 성과 창출
 - * 월클 중소기업의 36%가 中浬으로 성장, 매출 30.2%, 수출 38.7%, 고용 22.7% 증가

□ 월드클래스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

- 월드클래스 1단계 사업 종료(‘19년 일몰) ⇨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단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표 프로젝트에 착수

【 월드클래스 2단계 추진상황 】

- ‘19.9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(‘21~’33 9,135억원, 200개社 내외 신규 선정 예정)
- ‘20.12월 ‘21년 예산확보 완료 및 1차년도 기업 선정공고
- ‘21.5월 월드클래스 2단계 사업 1차년도(‘21년) 기업 선정 완료

II. 「월드클래스 1단계」 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

◇ 월드클래스 1단계 사업의 대상 기업은 총 284개社

- * 월드클래스 1단계 사업 대상기업(‘21.4월 기준) : (선정) 313개, (취소) 29개, (최종) 284개
- 10년간(‘11~’20) R&D 277개 과제에 약 1.2조원(국비 7,487억원) 지원
- 금융·수출·인력 채용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패키지 지원
 - * 산업은행, 기업은행, 농협, 하나은행, KOTRA, 무보 등 14개 기관(‘21년 현재)

1 월드클래스 사업 성과

① (기업적 측면) 월클 중소기업 3개社 중 1개 이상은 중견기업으로 성장

- 월드클래스 지원 프로그램이 성장사다리*로 작동하여, 선정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176개社 중 64개社(36%)가 중견기업으로 성장
 - * 월클 선정이후 중소→중견 전환 기업 : (중소→중견) 64개社, (중견→중소) 6개社
 - ** 중소기업 개수 및 비중 : (선정당시) 176개社, 62% → (‘19) 118개社, 42%

기업명	주요 사례
A社 (이차전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‘17년 월클300 기업 선정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중견 기업으로 성장(‘19년 코스닥 시장 상장) ▪ 국내에서 하이니켈계 전구체 합성기술 및 양극소재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양산화에 성공 <p>* 월클 선정 당시 대비 ‘19년 매출액(112.5%), 고용(40.8%) 모두 증가</p>
B社 (정보통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‘11년 월클300 기업 선정 당시 중소기업이었으나 중견 기업으로 성장(‘12년 코스닥 시장 상장) ▪ 차량용 카메라 업체 세계시장점유율 5위, 자율주행차 등 다른 전자장비용 카메라 부문 10년간 국내 시장점유율 1위

② (산업적 측면) 자동차,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주체로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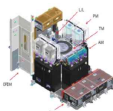
구분	전기 전자	기계 소재	자동차	반도체/디스플레이	화학	바이오 의료	ICT	조선	기타	계
기업수(개社)	59	51	41	32	31	28	26	7	9	284
비중(%)	20.8	18.0	14.4	11.3	10.9	9.9	9.2	2.5	3.2	100

- 유효기업 284개 중 소부장 기업이 223개*로 78.5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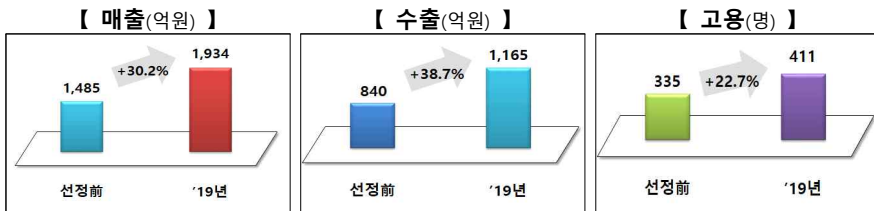
- * 자동차(39개社, 17.5%), 반도체/디스플레이(26개社, 11.7%), 바이오(17개社, 7.6%) 등
- ** 월드클래스 기업중 소부장 으뜸기업은 13개社(전체 으뜸기업 22개社의 59.1%)

- 반도체,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드클래스 기업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성과도 창출

기업명	주요 사례
C社 (차세대 반도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PR Strip 장비 국산화에 성공하여 PR Strip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* 세계 대형업체를 제치고 세계 시장점유율의 50% 가량(2018년 46.5%)을 차지 ■ PR Strip 관련 450mm 웨이퍼용 공정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하여 반도체 산업 국산화에 기여('12년 월클300 기업 선정) * 매출액 : ('12년) 705억원 → ('19년) 1,377억원 * 고 용 : ('12년) 152명 → ('19년) 329명
D社 (바이오 헬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용 자동 척추 온열기 시장의 세계 최초 First Mover로서 홈 헬스케어 가전의 신시장 창출('18년 월클300 기업 선정) * 매출액 : ('18년) 1,078억원 → ('19년) 1,537억원 * 고 용 : ('18년) 166명 → ('19년) 390명



③ (국민경제 측면) 기업 혁신·정책 지원으로 기업가치, 수출, 고용 등 증가



- 월클 기업 중 상장기업은 165개사로 전체 유효기업의 58.1%를 차지
 - * 상장기업 비중 : 월드클래스 58.1% > 전체 중견 17.9%
- 시가총액 증가율('11년초 대비)도 81.9%(연평균 6.2%)로 크게 증가
 - * (참고) KOSPI 지수 : ('11초) 2,070.08 → ('20) 2,873.47 (+38.8%, 연평균 3.3%)
- 국내외 특허 출원 등에서도 他 사업대비 우수한 성과 창출
 - * 10억원당 특허출원('18, 월드클래스 / 국가 R&D) : (국내) 5.41 / 1.57, (해외) 2.18 / 0.29

기업명	주요 사례
E社 (자동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선정전 대비 '19년 매출 (198%), 수출(347%), 고용(255%) 등 크게 증가 * 매출(억원) : ('10)3,535 → ('19)10,536, 수출(억원) : ('10)1,632 → ('19)7,298, 고용(명) : ('10) 1,155 → ('19) 4,103



2 월드클래스 사업 추진의 시사점

□ 기업중심으로 10여년간 꾸준히 지원 ⇨ 中堅 대표 브랜드로 안착

- “先 기업 선정 → 後 R&D”의 파격적인 지원으로, 기업이 원하는 과제를 유연하게 수행 ⇨ 기업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
 - 월클 지원을 통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, 기업의 원재료 공급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·성장 밑거름으로 활용(아이에스시, 4.12, 월클기업 간담회)
- 월클 기업이라는 신뢰성과 혁신성은 직간접적으로 기업가치와 자부심 제고에 기여 ⇨ 대내외 브랜드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
 -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후 크게 성장, 월클 기업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TV 방송 등 브랜드 홍보의 기회가 많아지기를 희망 (티맥스 등, 4.12, 기업 간담회)

□ 개별 기업 성장 위주 지원 ⇨ Next Step은 성과의 확산에 대한 고려 필요

- 1단계 사업의 경우 개별기업 성장 중심의 지원으로, 고용·수출 등 각 기업의 성장에는 효과가 있었으나, 성과의 확산은 다소 미흡
 - 단일기업 성장 중심의 지원정책으로는 산업 육성에 한계,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개념 확장필요(광운대 이홍 교수, 3.25, 전문가 간담회)
- 동일 산업 내 기업과 대학·연구소들이 상호 연계·협력하면서, 개방형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 설계 필요

□ 따뜻한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필요

- 기업 가치의 중심이 “얼마나 이익을 창출”하였는가에서, “어떻게 성과를 창출”했는지로 변화 ⇨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
 - * 美 BRT(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)은 기업의 존재 목적이 종래 “주주이익 극대화”에서 “이해관계자 이익 극대화”로 변경하는 기업의 “NEW PURPOSE”를 선언('19)
- 월드클래스 기업이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롤모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, 친환경, 투명경영 등 비재무적 관리(ESG)도 필요
 -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, 환경(E), 사회(S), 지배구조(G)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(3.31, VIP 상공의날 기념사)

Ⅲ. 「월드클래스 2030」 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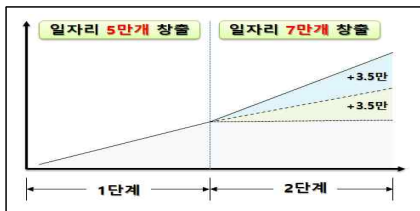
“함께하는 따뜻한 성장의 주역,
3대 덕목을 갖춘 견실한 월드클래스 기업 육성”

- ①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견인하는 **알짜기업**
- ② 産·學·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**중추기업**
- ③ ESG(환경, 사회, 거버넌스)를 실천하는 **모범기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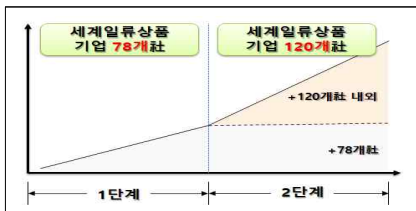
1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견인하는 알짜기업

- ◇ '30년까지 월드클래스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7만개 추가 창출
- ◇ 월드클래스 기업 중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20개社 추가 육성

【일자리 창출】



【세계일류상품 육성】



1 일자리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총 9,135억원 투자

* 월드클래스 2단계 기간 및 예산 : '21~'33년(13년)/9,135억원(정부 4,635억원, 민간 4,500억원)

- '30년까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중견기업 총 200개社* 신규 선정

* 200개社 중 ① 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150개社は R&D 비용 직접 지원(최대 4년, 60억원 이내), ② 성장기반을 갖춘 50개社は 금융·수출 등 세르파 지원 및 타 R&D 연계

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과 연계

- 청년들이 월클 등 우수 중견기업을 제대로 알고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 프로그램 추진* 및 고용 인센티브 지원**

* 중견기업 바로알기 특강,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, 중견기업 지역대학 채용로드쇼 등

**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

- 디지털 전환,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분야 우수 인력의 중견기업 유입 확대를 위해 산학 협력 강화

3 「월드클래스 세르파」 지원을 통한 세계 일류기업 도약 지원

- 기존 수출, 금융 지원 등에 더하여, FTA, 시험인증, ESG 및 경영 컨설팅 등 기업 경영 쏙주기 지원

【월드클래스 세르파 지원기관(안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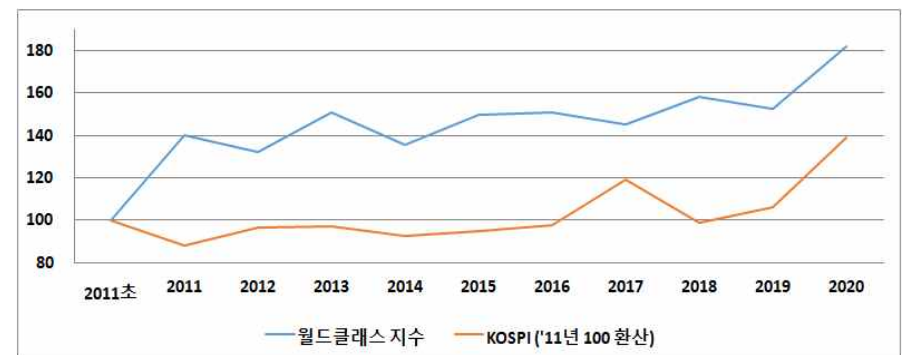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기관
금융	▲ NH농협은행, ▲ SGI서울보증, ▲ 우리은행(신규), ▲ 하나은행, ▲ 한국수출입은행
수출	▲ KOTRA, ▲ 한국무역보험공사, ▲ 한국무역협회(FTA 종합지원센터, 신규), ▲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(TBT 종합지원센터, 신규)
컨설팅 (경영-ESG 등)	▲ 한국생산성본부(신규), ▲ 한국소부장투자기관협의회(신규), ▲ 한국표준협회(신규), ▲ 한국거래소(신규)
IP 컨설팅	▲ 한국발명진흥회(신규), ▲ 한국지식재산보호원, ▲ 한국특허전략개발원
기업지원	▲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▲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신규)
인력	▲ 잡코리아

4 월클기업의 성장 척도로서 「월드클래스 기업 지수(가칭)」 신설

- 월클 기업의 성장 정도를 측정하고 시장·국민에 홍보하기 위해 월드클래스 기업을 대표하는 종합지수 신설 ⇨ 반기 1회 발표·홍보

* '11.1.3일 월드클래스 상장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, 시기별 지수 산정

【(참고) 연도별 월드클래스 기업 지수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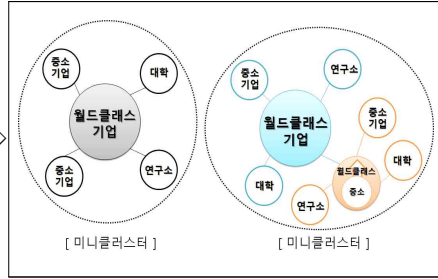
2 産・學・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중주기업

◇ 개별 기업 육성에 방점을 둔 WC 1단계 사업을 개편하여, 월드클래스 중심의 지속가능한 “산·학·연 혁신생태계” 조성

【 1단계 : 개별기업 중심 육성 】



【 2단계 : 중견-중소·학·연 생태계 조성 】



1 자동차 부품, 2차 전지, 차세대 반도체, 바이오 헬스 등 각 분야에서 월드클래스 기업이 리더가 되어 혁신생태계 조성 선도

○ 월드클래스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이 연계하여 R&D를 공동으로 수행하고, 상호간 지속적인 네트워킹* 지원

* 각각의 월드클래스 기업이 중소기업·대학·연구소와 독립적인 산학연 협의체(미니클러스터)를 구성하고 공동 기술개발, 사업아이템 발굴,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 운영

【 월드클래스-산·학·연 협력모델(예시) 】

네트워크 연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일 업종 중견 및 중소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공유, 아이템 발굴, 애로사항 공동 대응 등 중견(월드클래스)기업이 주도로 세미나, 포럼 등 개최, 사업 공동추진 및 대응 	【 코스맥스 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장품 ODM 기업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투자→제품제조→판매 등 협업 추진
수요 공급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·2차 또는 2·3차 벤더기업의 형태로 중소기업이 부품 등을 중견기업에 납품 중견기업의 구매조건부로 중소기업(기존 또는 신규 공급기업)에 R&D 지원, 대학·연구소 등은 기술지원 	【 광성기업 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기차 1차 협력업체 성과물 양산 적용을 전제로 중소·연구소와 공동 기술개발 추진
신사업 투자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벤처스타트업의 우수 기술 및 아이템과 중견기업의 자본·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시너지 창출 중견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M&A 추진 	【 선보공업 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 회사와 시너지를 내는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선보인텔리파트너스를 설립, 유망기업 투자

2 기업 유형에 따라 “Two-Track 맞춤 운영” 추진

○ (혁신성장형)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 수출·R&D 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기업 ⇒ 월드클래스+ R&D* 직접 지원

* 월클 기업을 중심 중견-벤처-중소기업 간 협업 확대를 위해 선정시 산학연 컨소시엄 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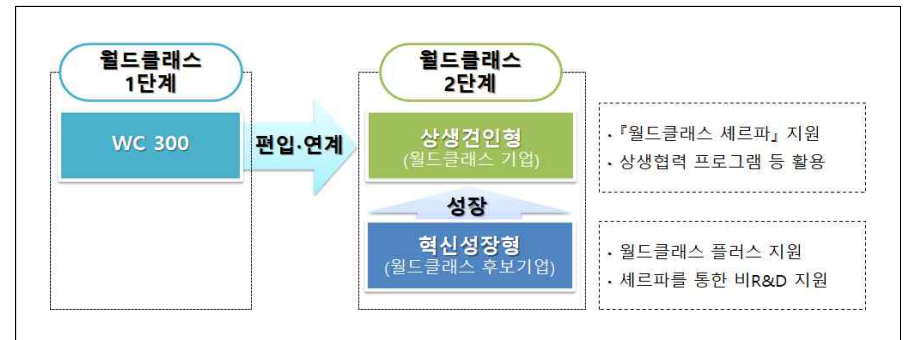
○ (상생견인형) 성장기반을 갖추고, 산·학·연 혁신 생태계 구축의 주역이 될 기업 ⇒ 월클 셰르파(비R&D) 지원,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활용

구분	혁신성장형 (월드클래스 후보기업)	상생견인형 (월드클래스기업)
공통기준	■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 이상 중견 후보기업	
개별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수출비중) 직전연도 직접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미만 ■ (R&D 집약도) 매출액 대비 R&D 투자 비중이 최근 3년 평균 1%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수출비중) 직전연도 20% 이상 ■ (R&D 집약도) 최근 3년 평균 2% 이상 또는(연평균 매출증가율) 최근 5년간 15% 이상
지원	R&D ■ 월드클래스 플러스 R&D 지원	■ 상생협력 등 他 R&D 활용가능
내용	비R&D ■ 금융, 인력, 수출 컨설팅 등 기업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	

3 1단계 월클기업의 단절 없는 연계를 위한 운영 체계 개선

○ (現) 월드클래스 선정기간(10년) 만료*시 졸업 및 관리·지원대상에서 배제 ⇒ (改) 기업 희망시 월클 상생견인형으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

* 「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」 제12조에 따라 월드클래스 기업의 선정효력은 5년이며, 2회(2+3년)에 걸쳐 연장 가능(총 10년)



3 ESG(환경, 사회, 거버넌스)를 실천하는 모범기업

◇ 매출·고용 등 성과 뿐만 아니라 경영시스템의 선진화, 친환경 도입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여 “ESG 모범기업”으로서 성공모델 발굴

1 중견기업 ESG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

- ESG 경영은 사회공헌의 차원을 벗어나 기업의 대내외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* ⇨ ESG 경영도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
- * 금융위는 '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, '30년까지 모든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
- KPC, 표준협회 등 ESG 관련 기관을 「세르파 기관」으로 편입하고, 교육·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ESG 인식제고 및 역량 함양

2 K-ESG 지표와의 연계를 통한 기업의 ESG 경영 지원방안 모색

- 가이드라인 성격의 「K-ESG 지표*」 마련(21. 下)시, 생산성본부 등과 협의하여 월드클래스 기업의 ESG 역량 진단 및 제고에 활용
- * 우리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제고하고, 민간 평가기관이 활용 가능한 ESG 평가지표의 가이드

3 ESG 모범 기업 발굴·성공사례 공유 및 홍보 추진

- 월클 기업 중 경영시스템 선진화, 친환경 전환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, 「월드클래스 ESG 세미나(가칭)」를 정기적으로 개최
- ESG 등 모범경영을 펼친 월클 기업에 대해 TV 매체 등을 통해 방송하여, 기업의 자부심 고취 및 사회적 인식제고
- * (1안) KBS 중견관리 활용 (2안) 월드클래스 전용 프로그램 기획·방송 송출 협의

【 (참고) 중견관리 프로그램 】

- 개요 :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일자리 환경 등을 흥미로운 스토리로 소개
- 방송편성 : KBS 1TV, '19.11.17~12.22(시즌1), '20.10.25~11.29(시즌2) 일요일 13:00~14:20
- 출연기업 및 시청률 : 경인양행 등 24개, 평균 3.2%(시즌1) / 3.9~4.0%(시즌2)